

慶州 李中久家 五代 古文書 資料의 정리와 성과*

이 재 령**

국문초록

본 연구는 ‘서간문에 기초한 조선 후기부터 구한말까지의 민간생활사 자료’ 구축을 위해 탈초, 해제된 결과를 정리, 소개하는데 목표를 둔다. 연구대상으로 삼은 자료는 단국대학교가 소장하고 있는 ‘경주 이중구가의 5대 고문서’ 8천여 건이다. 천년고도 경주에서 화재 이연적의 후손이라는 높은 긍지를 지녔을 영남 남인계의 가문이 혼돈의 근대이행기를 살아낸 내면의 기록들로 자료의 성격과 시대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거시적으로는 향촌에 거주한 양반들의 동학, 위정척사, 을미사변, 단발령, 아관파천 등의 국내문제와 의화단사건, 청일전쟁, 러일전쟁 등 대외문제에 관한 봉건 지식인들의 현실 인식과 대응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미시적으로는 향촌의 공공영역 활동, 서원 및 개인의 학문 활동, 전통문화와 관습, 관혼상제, 의료·보건, 과거 급제와 출세의 열망, 친인척간 사랑, 지인들의 관심과 배려, 문학 활동과 예술적 흥취 등 일상 속에서 쌓여온 삶의 모습과 생각들이 그대로 드러나 이들의 민낯을 가감 없이 볼 수 있다.

예컨대 감모공 건립 모금의 폐해, 러일전쟁 전후 일제 침탈에 대한 우려와 분노, 신문명에 대한 반응과 신 지식체계의 수용 등을 통해 구한말 지식인들이 고루하거나 폐쇄적이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이중구가 관직 생활을 마치고 낙향한 후 펼친 다양한 활동은 향론의 주도자요, 향촌 지도자로서 역할을 잘 보여주고 있다. 고종의 복국 운동은 실행 유무와 문건의 진위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고문서에 포함된 등본자료를 통해 나라를 잃은 군주의 절실한 노력과 이를 뒷받침했던 신하의 지극한 모습을 통해 저물어가는 봉건시대 충의 잔영을 엿볼 수 있다.

무엇보다 일상생활 속에서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고 애절한 정을 드러낸 편지를 많이 볼 수 있다. 며느리를 보는 날, 딸은 오지 않고 사위만 오자, 딸 사돈이 사돈에게 보낸 아쉬움이 절절하게 배어난 편지나 손녀딸에 애태우는 친정 할아버지의 애달픔을 살필 수 있는 편지, 출산을 앞둔 긴장감을 전한 편지 등은 동시대 가족사랑이 엄격한 예교 질서나 표피적 현상과 많이 달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중구가의 편지와 기타 고문서에 대한 탈초, 해제 및 기본정보 등의 연구가 마무리되고, 체계적인 정리, 분석작업이 진행되면 조선 후기부터 구한말까지 사회상과 향촌의 일상, 지식인의 현실적 고뇌와 대응을 보다 실질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한국 근대사의 연구범위와 대상을 확장시켜 동아시아 근대사의 이해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李中久, 李彥迪, 紫雲契案, 李在立, 李能德, 李錫日, 孫李是非, 金奎華, 金鎮衡

* 이 논문은 2021학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단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 jrlee@dankook.ac.kr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III. 자료의 현황과 주요 내용 |
| II. 이증구 가계의 내력과 위상 | IV. 맺음말 |

I. 머리말

단국대학교가 소장하고 있는 ‘경주 이증구가의 5대 고문서’(이하 이증구가 5대 고문서)는 자운(紫雲) 이증구(1851~1925)의 조부(祖父) 이재립(李在立, 1798~1853)에서 손자(孫子) 이인원(李寅源, 1923~?)에 이르는 5대에 걸쳐 산출된 여주(驪州) 이씨(李氏) 경주파(慶州派)의 민간생활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들이다. 이에 기초하여 조선 후기부터 구한말까지의 민간생활사 자료를 정리, 소개하는데 연구목표를 두고 있다.¹⁾

이증구의 12대 조는 동방 18현의 한 분인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1491~1553)이다. 『국조방목(國朝榜目)』에 따르면 그의 증조부(曾祖父)는 이필상(李弼祥, 1732~1783), 조부는 이재립, 아버지는 이능덕(李能德, 1826~1861)이다.²⁾ 이증구는 철종 2년(1851) 출생으로 고종 25년(1888) 무자년 식년시 병과에 급제하여 교리(校理)를 지냈다. 아들은 이석일(李錫日), 손자는 이인원이다. 이들이 활동했던 조선 후기는 정조(正祖) 이후 정계에서 영남의 남인계가 기지개를 켜고, 뒤이어 노론계의 세도정치로 이어졌다. 대외적으로는 기독교 유입과 서구의 침탈이 본격화되면서 서학 바람이 거세게 일었고 위정척사, 동학운동, 광무개혁 등으로 맞섰지만 끝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이증구의 나이 65세 되던 1916년(丙辰)에 작성한 『자운계안(紫雲契案)』은 35쪽 분량에 248명의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다. 이들은 주로 경상도 일원에 주거하면서 이증구와 교유했거나 그의 아들 석일과 교유한 것으로 여겨진다. 간찰의 경우 그의 부(父), 조(祖)와 관련 있는 것을 제외하면 상당 부분이 이 명단에 들어 있는 사람들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므로 천년고도 경주에서 회재의 후손이라는 높은 긍지를 지녔을 영남 남인계의 가문이 혼돈의 근대이행기를 살아낸 내면의 기록들이 우리에게 무얼 보여줄 것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증구가의 고문서에 주목한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특히, 서간문에 기초한 조선 후기부터 구한말까지의 민간생활사 자료를 구축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이 왕조에 의해 간행된 공식적인 관찬(官撰) 역사서라면 이증구 집안이 소장한 8천여 점의 고문서는 여주 이씨 경주파란 한 지식인 집안의 1백여 년에 걸친 사찬(私撰) 자료다. 그 양이 방대할 뿐 아니라 여기에 포함된 고문서 기록은 19세기 초반부터 20세기 초까지 생활사를 체계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귀

1) 단국대학교 퇴계기념중앙도서관 소장의 <이증구가 5대 고문서>(이하 <이증구가 5대 고문서>로 약칭)는 간찰(簡札)·상소(上疏)·물목(物目)·단자(單子)·시문(詩文)·도록(圖錄)·잡문(雜文)·관혼상제(冠婚喪祭)의 기록 등 12,000건에 달한다. 그중 성격별 분류가 가능하면서 연구 가치가 탁월한 8,004건을 대상으로 삼았다.

2) 조부 이재립이 현종 6년(1840) 경자년 식년시 갑과 3위로 급제하였다(한국학중앙연구원 규장각 소장, 『奎貴』 11655; 朴周大編著, 『文蔭縉紳譜』文科編, 麗江出版社, 1986).

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고문서는 선비로써 자긍심을 가졌을 화재의 자손과 교유한 1천여 명의 문사나 선각자들이 질곡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처세했는지 생생히 보여준다. 아울러 5대에 걸친 한 집안의 변화를 살피는 것은 더욱 흥미로울 수밖에 없고, 자료의 성격과 시대가 명확히 확인된다는 점에서 높은 가치가 있다.³⁾

‘생활사’는 인간의 생활과 관련된 역사를 의미한 것으로 역사학이나 문화인류학, 특히 민속학의 관점에서 연구되어왔다. 엄밀히 말하면 생활사는 ‘언어,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연구될 수 있다. 선행연구는 네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 고문서의 성격과 관련한 연구, 서간문과 관련한 연구, 고문서의 DB와 관련한 연구, 민간 생활사와 관련한 연구 경향이다. 서간문(簡牘·簡札·諺簡·尺牘)에 관한 학술적 연구는 주로 한글 간찰을 연구하는 학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⁴⁾ 한문 간독의 경우 중국학 연구자 가운데 일부의 연구 성과가 있으나, 한국의 한문 간독을 대상으로 한 연구 성과는 쉽게 찾기 어려우며, 더욱이 초서 간독의 경우 일제강점기 초서 편지 쓰는 방법을 정리한 자료 이외에 전문적인 연구 성과를 찾아보기 어렵다.⁵⁾ 이 점에서 이중구가의 고문서 가운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초서 간찰은 서간문 연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⁶⁾

근래 간찰이나 고문서를 주요 자료로 이용하여 쓴 생활사 연구가 활발하였다. 우리나라의 생활사 연구는 서구의 미시사적 개념의 생활사와 다르지만 일상생활사(history of everyday Life)로서 고문서나 일기, 연대기 등을 미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스토리텔링 하는 개념의 생활사라고 할 수 있다.⁷⁾ 이러한 개념의 연구는 한 동안 이어져 일종의 생활사 연구 붐을 일으켰는데 최근에 좀 더 깊이 있는 미시적 차원의 일상생활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⁸⁾ 예컨대 고문서나 간찰 등을 깊이 있게 분석하여 옛날이야기를 하듯이 조선시대의 한 가족, 한 마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주고 있다.⁹⁾ 그뿐 아니라 간찰을 분석하여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산송(山訟)이나 과거(科擧) 등에 대한 청탁 즉 ‘칭념(稱念)’ 등을 다룬 세밀한 성과가 있고,¹⁰⁾ 이외에 의료·민속 등을 주제로 한 생활사 논문을 찾아볼 수 있다.¹¹⁾

3) 이중구가의 고문서는 두루마리 형태의 간찰과 긴 물목, 한지 낱장 형태의 방문(榜文)으로부터 통문(通文)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들 8천여 점의 고문서는 일부 언간(諺簡)을 제외하고 대부분 한자와 한문으로 구성되어 접근이 쉽지 않다.

4) 서간은 편지를 주고받는 교신자(말신인·수신인, 송수신자) 간의 소통 행위물을 총칭하는 개념이며, 서간문은 서간에 담긴 내용물인 편지글을 지칭한다. 서간과 비슷한 낱말들인 簡·簡牘·簡札·告目·貴翰·貴槓·貴函·금월·奇別·書·書柬·書牘·書疏·書信·書字·書狀·書札·書尺·書翰·聲問·手札·信·信書·雁書·御問(御簡)·玉書·玉音·鯉素·札翰·尺簡·尺牘·尺翰·片楮·翰墨·翰札·寒喧·緘札·函翰·華簡·華墨·華翰·惠書·惠音·惠函 등도 모두 유사한 내포와 외연을 가지고 있다. 김성수, 『한국 근대서간문화사 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4. 17~18쪽.

5) 이종성, 『草簡牘』, 지물서책포, 1913; 지송옥, 『草簡牘』, 신구서림, 1926.

6) 이중구가의 고문서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簡札로 6,870건이며, 輓詩 260건, 祭文·慰狀 213건, 單子 79건, 記·序·跋·上樸文 54건, 雜文 131건 등 20여 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7) 김성윤, 「조선시대 정치생활사 연구의 현황과 전망」, 『영남학』 13, 2008; 김주관, 「생활사 아카이브 구축의 의미와 방법」, 『지방사와 지방문화』 9-2, 2005; 심경호, 「고문서의 역사 문화적 가치와 역주를 통한 의미의 확장」, 『藏書閣』 36, 2016; 정연식, 「한국 생활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 조선시대 생활사 연구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72, 2009.

8) 전경목, 『고문서를 통해서 본 우반동과 우반동 김씨의 역사』, 신아출판사, 2001; 한국역사연구회,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1·2』, 청년사, 1996; 한국고문서학회, 『조선시대 생활사』 1~4, 역사비평사, 1996, 2000, 2006, 2010.

9) 서울 근교에 사는 지식인 선비 조병덕이 가족과 주변 친지들, 특히 둘째 아들에게 보낸 편지 1,700여 통을 활용하여 저술한 저서가 대표적이다(하영휘, 『양반의 사생활 : 조병덕의 편지 1700통으로 19세기 조선을 엿보다』, 푸른역사, 2008).

10) 김현영, 「지방관의 ‘칭념’ 서간을 통해 본 조선말기 사회상 - 1884~1885년에 민관식(閔觀植)이 받은 간찰을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49, 2016. 이 글은 1884년~85년에 고산군수와 공주판관을 역임한 여흥 민씨 민관식의 간찰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이중구가의 고문서는 아직 학계에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본격적으로 활용한 연구는 없다. 다만 회재 이언적의 아들인 잠계(潛溪) 이전인(李全仁, 1516~1618)이 부친을 현양하기 위해 이항(李滉)에게 지도를 요청한데 대한 퇴계의 답신들, 그리고 회재의 손자이자 잠계의 아들 구암(求菴) 이준(李濬, 1540~1623)이 소재(蘇齋) 노수신(盧守愼)에게 조부의 『대학장구보유』 발문을 요청하는 편지 등이 탈초 번역되었고, 그 시대의 사회적 정치적 배경과 현상을 곁들여 상세한 해제를 덧붙인 연구가 있다.¹²⁾ 경주 여주이씨 무침당(無忝堂, 宗家) 및 이영환 소장 자료의 해제집도 출판되었다.¹³⁾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기획한 『회재 이언적, 독락당의 보물 서울 나들이』는 경주 여주 이씨 옥산 문중의 종가 독락당과 어서각의 소장 자료를 원본 사진과 번역문을 함께 제공하여 옥산서원의 학문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¹⁴⁾

5대에 걸친 이중구가의 간찰과 기타 자료는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작성되었다. 간찰 내용은 이 시기에 펼쳐진 경주 중심의 지역 문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편지를 읽으면서 주인공들의 생각과 정서는 물론 그들의 삶, 나아가 당시의 사건과 역사에 대해 구체적이면서도 풍성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중구가의 간찰을 통해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지역 생활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중구 가계의 내력과 위상

이중구가의 고문서 연구를 위한 첫 걸음은 문건 생성의 배경이자 원천인 여강 이씨의 가계와 가문 내력, 정치 및 학문적 위상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소장 고문서 가운데 ‘계안’에는 250여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경주파 족보와 계안을 중심으로 파악한 이중구가의 세계도(世系圖)를 소개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이중구는 여주 이씨 경주파의 23세 후손으로, 시조는 고려조 경기도 여주 지역의 유명한 호족이었던 이세정(李世貞)으로 확인된다. 그의 11세 후손이 이언적이며, 고문서의 맨 앞에 등장하는 이중구의 조부 이재립은 21세손이다. 이 때문에 여주 이씨 경주파의 본령인 이언적의 생애와 학문, 사회적 위상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¹⁵⁾

11) 박윤재, 「민중생활사 복원을 위한 의학사의 도전」, 『의사학』 24: 1, 2015; 임재해, 「민속학 생활사료 인식과 역사학의 통섭」, 『한국민속학』 61,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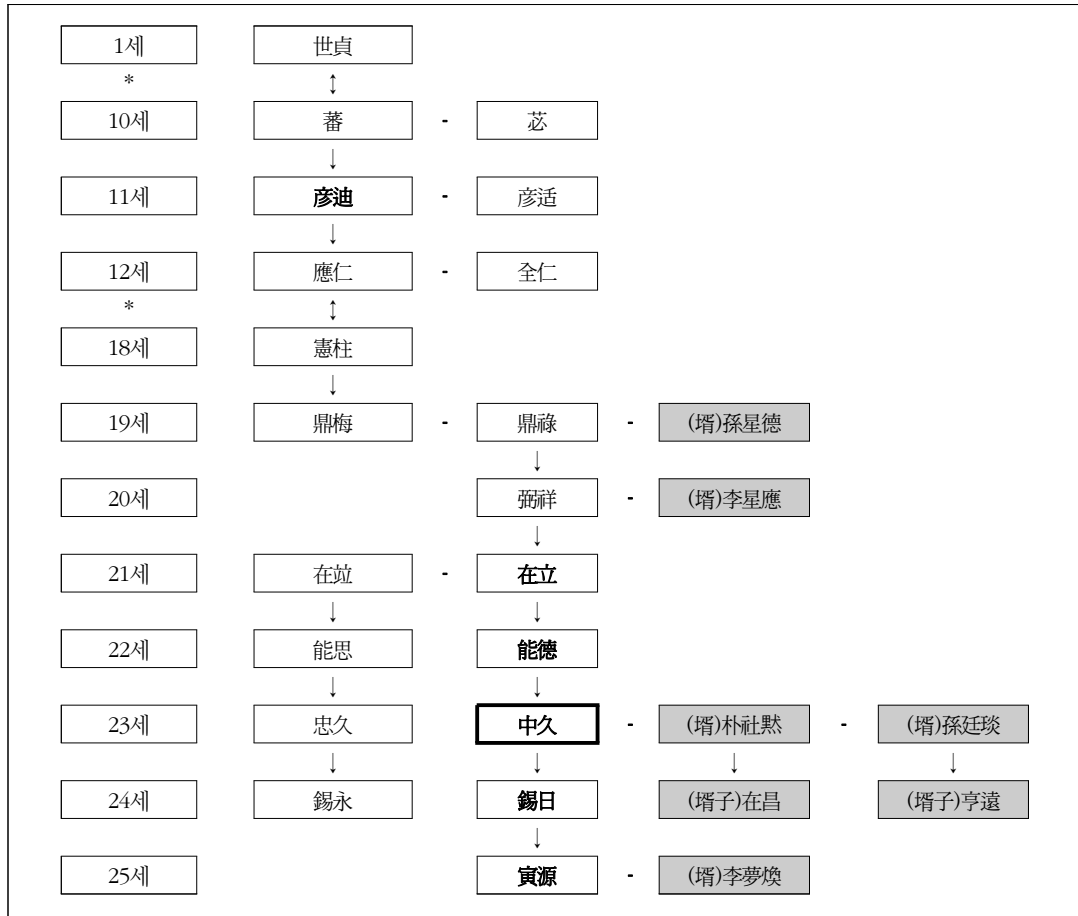
12) 손문호, 『옛사람의 편지-사람과 시대를 잇는 또 하나의 역사』, 가치창조, 2018, 6~7쪽.

13) 이수환, 「경주 驪州李氏 無忝堂(宗家) 및 李泳煥 소장 자료 해제」, 『수집자료해제집』 3, 국사편찬위원회, 2009.

14) 서혜란, 『회재 이언적, 독락당의 보물 서울 나들이』,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 2019.

15) 회재 이언적의 삶과 사상에 관해서는 다수의 연구 성과가 있다(김교빈, 『이언적: 한국 성리학을 뿌리내린 철학자』,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0; 이지경, 『회재 이언적의 정치사상』, 한국학술정보, 2005; 조창열, 『회재 이언적의 경학사상』, 한국학술정보, 2008; 목민기념사업회 편, 『회재 이언적의 철학과 정치사상』, 박영사, 2000; 장도규, 『회재 이언적 문학연구』, 국학자료원, 2000) 현재까지 이언적의 한시, 십학사상, 정치사상, 문학, 철학사상, 도학사상, 풍수지리, 의리사상, 공부론 등과 관련된 박사학위 논문이 수십 편 나왔다. 서혜란, 위의 책, 136~137쪽.

〈표 1〉 여주 이씨 경주파 이증구가의 세계도



이언적은 현재의 경상북도 경주 양동마을에서 태어났다. 양동마을은 500년 전통을 가진 역사 마을로 2010년 안동 하회마을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곳이다.¹⁶⁾ 이언적의 본관은 여주인데, 그의 가계는 따로 여강 이씨 또는 더 좁게 출생지를 따서 양동 이씨로 불리기도 한다. 이언적의 선대가 여말선초에 여주를 떠나 경주 인근으로 이주했고, 이언적 이후 양동마을에 뿌리를 내렸다. 양동마을에는 이언적의 외조부 경주 손씨 송재(松齋) 손소(孫昭)가 정착하여 우재(愚齋) 손중돈(孫仲墩) 등 그 아들들이 대를 이어 살고 있었다. 이언적의 부친 이번(李蕃, 1463~1500)이 손소의 딸과 혼인하여 이언적을 낳은 이래로 그 후손들이 그 곳에 정착 번성했고, 양동마을은 두 성씨의 집성촌이 되었다.

이언적은 외가에서 태어났다. 산실은 경주 손씨의 종택인 송침(松簷)에 있는 건넌방이었다. 송침이란 당

16) 權容玉, 「晦齋 李彦迪과 良洞마을」, 『儒學研究』 26, 2012, 2쪽.

호는 손소의 호 송재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한동안 서백당(書百堂)이라고 불렀는데, 그 호를 쓴 것은 후에 중손 이후의 일이다.¹⁷⁾ 이언적의 초명은 적(迪)이었으나, 31세 때 중종의 명으로 언(彦)자를 더하여 ‘언적’이 되었다.¹⁸⁾ 이언적의 자는 복고(復古), 호는 회재(晦齋) 또는 자계옹(紫溪翁)이다. 호는 안향의 회軒(晦軒)이라는 호와 마찬가지로 주희의 호 회암(晦菴)에서 따온 것이다. 이는 주희의 학문을 따른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언적은 10세 때 부친상을 당하고 외숙 손중돈의 임지를 따라다니며 글을 배웠고, 훈도를 받으며 자랐다.¹⁹⁾ 그는 23세 때 생원시에 급제하여 성균관에서 수학했다. 24세 때에는 문과에 급제했다. 1514년에는 교서관의 권지 부정자로 관직생활을 시작하여 이듬해 1515년에는 경주 주학교관으로 부임했다. 급제 이후 이언적의 학문은 일취월장 독자적인 경지로 치닫기 시작하여 1517년 그는 외숙 손숙돈(孫叔暉)과 조한보(曹漢輔) 사이의 무극태극(無極太極) 논쟁에 가담했는데, 주자의 주리론에 입각하여 두 사람을 모두 비판함으로써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것은 한국 유학사에 길이 남을 주리론의 탄생이었다. 주리론은 이후 퇴계 이황에 의해 완성된다. 그해 7월 이언적은 권지를 면하여 교서관 부정자로서 조정에 섰고, 이후 거듭 승진하였다.

이언적은 권신 김안로의 재등용을 반대하다 1531년 파직되었고, 한동안 양동마을 근처 옥산에 내려가 사랑채를 짓고 이름을 독락당(獨樂堂)이라고 붙이고는 학문과 교육에 전념했다.²⁰⁾ 1537년 홍문관 직제학으로 복직되었고, 이듬해에는 전주 부윤으로 나아가 〈일강십목소(一綱十目疏)〉를 올렸는데 중종에게 극찬을 받았다. 중종 말년에는 당시 세자였던 인종을 보필하는 빈객과 대사헌, 이조·예조·형조판서, 의정부 좌참찬, 홍문관 제학 등 중앙의 요직을 역임했다. 또한 외직을 청하여 경상도 관찰사로 나가기도 했고, 인종 때는 병중에 있었지만 의정부 우찬성·좌참찬에 올랐다.

1545년 명종이 즉위하자 이언적은 좌참찬으로 원상(院相)이 되어 국사를 돌보았다. 그러나 1547년 정미 사화가 일어나 많은 선비가 희생되고 이언적도 함경도 강계로 유배되었다. 1553년 이언적은 결국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했다. 유배 기간에 그는 『대학장구보유』·『속대학혹문』·『봉선잡의』·『구인록』·『중용구경연의』 등을 저술했다. 특히 『중용구경연의』는 필생의 학문적 업적이었지만 미완성으로 남았다. 이 기간에 『진수팔규』도 저술했는데 훗날 그가 복권되는데 결정적 계기가 된다.²¹⁾

생의 말년에 유배라는 악조건에서 이언적이 불후의 명작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아들 이전인의 헌신적인 봉양 덕분이었다. 이언적 사후, 조정에 「진수팔규」를 올려 복권의 계기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전인이었다. 이전인은 이언적의 서자로, 『기문총화』에 의하면 이언적과 이전인이 서로 부자임을 확인하고 상봉한 것은 이

17) 서백은 참을 ‘인(忍)’자를 매일 백번 쓴다는 뜻이다. 權容玉, 위의 글, 15~16쪽.

18) 북송의 선현 가운데 그와 동명의 인물이 있어 기휘(忌諱)하려는 뜻이 있었고, 또 그와 동명의 급제자가 있어 구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언(彦) 자는 글 잘하는 훌륭한 선비를 뜻하니 중종이 이언적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큰 글자였다. 손민호, 위의 책, 129쪽.

19) 손중돈은 부친 손소의 연고로 영남 사람의 종장 김종직 문하를 출입함으로써 영남 사람의 계보에 들게 되었다. 그는 1482년(성종 13) 사마시에, 1489년 식년문과에 급제했다. 예문관 봉교를 거쳐 여러 청환직에 있다가 지방과 조정에서 벼슬을 하였고, 중종 때에는 청백리에 녹선되었다. 사후에 손중돈은 동강(東江)서원, 상주의 속수(溲水)서원에 배향되었다.

20) 이 당호는 『맹자』 ‘진심장구’ 상편에서 취한 것이다.

21) 「진수팔규」는 임금의 도리를 여덟 가지 조목으로 정리했다는 뜻이고, 그 내용은 『중용구경연의』의 요약이라 할 수 있다. 손민호, 위의 책, 137쪽.

언적이 강계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말년의 일이었다.²²⁾ 이언적과 적실인 박승부의 딸 함안 박씨 사이에서는 아들이 없었다. 이언적은 50세 때인 1541년에 사촌 동생 이통(李通)의 아들 이응인(李應仁)을 양자로 들였다. 이언적은 적서를 엄격히 구분하는 『주자가례』에 따라 양동마을의 종가와 법통은 양자 이응인에게, 옥산의 재산과 학문은 서자 이전인에게 각각 물려주었다. 당시에는 양자 이응인과 서자 이전인 사이가 비교적 원만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 대부터 이전인의 후손들은 엄청난 차별에 직면하며, 자칭 타칭 옥산파가 된다.

이전인은 이언적의 시문을 수집하고 이항에게 행장을 받아 붙여 1565년경에 정고본(定稿本)을 만들었다. 이전인의 아들 이준이 1575년에 경주에서 『회재집』을 출간했다.²³⁾ 서문은 노수신, 발문은 미암(眉巖) 유희춘(柳希春, 1513~1577)과 초당(草堂) 허엽(許曄, 1517~1580)에게 각각 받았다. 그에 앞서 이준은 이언적의 덕행과 학문을 추모하기 위해 옥산서원의 건립을 추진했다. 1572년(선조 5)에 외가 쪽 경주 손씨를 비롯한 향촌의 유림과 함께 경주부윤 이제민(李齊閔, 1528~1608)을 앞세워 옥산서원을 건립했다. 이듬해에 발문을 쓴 허엽에게 ‘옥산서원기’라는 글을 받았다. 옥산서원은 1574년 사액서원이 되었다.²⁴⁾

이준은 『회재집』에서 빠진 『중옹구경연의』와 『대학장구보유』를 별책으로 간행했다. 이준은 부친 이전인과 함께 퇴계의 문정을 드나들었으며,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 1542~1607)과 한강(寒岡) 정구(鄭逵, 1543~1620) 등 당대 일류 문인들과 교류하며 살았다.²⁵⁾ 하지만 서얼의 관직 진출은 태종 이후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었다. 이전인은 아예 관직에 나가지 못했으나 이준은 기회를 얻었다. 1583년 북방에서 니탕개의 난이 일어났을 때, 조정에서는 군사와 군량을 확보하려고 납속자에 대해 서얼 허통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이때 이준이 쌀 80석을 납속하여 허통 받음으로써 자신과 후손의 벼슬길을 열게 되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향촌 사회에서 서얼 허통 정책에 역행하는 차별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었고, 영남에서 특히 심했다. 이준이 관직에서 은퇴한 후 고향에 내려가 보니, 향촌 사족이 뽕뽕 뭉쳐 서얼의 유향소, 향교, 서원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조정에서만 서얼 허통이 받아들여졌지 삶의 기반인 향촌에서는 달랐던 것이다.²⁶⁾

1610년 이언적은 김평필, 정여창, 조광조와 함께 동방 4현으로 문묘에 종사된다. 문묘 종사의 조건은 학문적 업적과 도학적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이언적의 문묘 종사에서는 그의 학문적 업적이 높이 평가되었다. 실록을 작성한 사관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²⁷⁾

22) 이전인의 모친 석비(石非)는 경주 관비였다. 이언적이 석비와 관계를 가졌던 때는 그가 문관 급제 직후 잠시 경주에 주학교 관으로 가 있던 25세 때였다. 석비가 임신한 뒤 이언적은 중앙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석비는 임신한 상태에서 경상도 수사로 부임한 조윤손의 소실이 되었고, 7개월 만에 아들을 낳았다. 조윤손은 그 아들에게 옥강이란 이름을 지어주고 후사로 삼았다. 조윤손이 죽고 나자 석비는 아들에게 그의 친부가 이언적임을 밝혔다. 석비와 옥강 모자는 조윤손의 후사를 반납하고 양동마을을 이언적의 본가를 찾아갔다. 1547년 이언적이 강계에서 유배 중이란 말을 듣고 옥강은 곧장 부친을 찾아 유배지로 갔다. 거기서 그는 부친을 만나 전인이라는 이름을 새로 받았다(손문호, 위의 책, 138쪽).

23) 이언적(저), 조순희(역), 『회재집 1-2』, 2013; 목민기념사업회 편, 『(국역)회재전서』, 1991. 등 한글 번역본이 다수 있다.

24) 이병훈, 「조선시대 경주 옥산서원의 위상 변화」, 『한국서원학보』 11,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0. 참조.

25) 손문호, 위의 책, 147~148쪽.

26) 서얼금고법은 조정 차원에서 숙종 22년(1696)에 폐지되었다. 정조 연간에는 향촌에서도 서얼의 유향소, 향교, 서원 출입을 일부 허용하도록 결정이 났다. 이준 사후 2세기 반도 지난 1884년에야 서얼금고법이 전면적으로 폐지됐고, 서얼의 옥산서원 출입도 허용됐다(손문호, 위의 책, 149쪽).

27) 『명종실록』 1553년(명종 8) 11월 30일. 『조선왕조실록』, www.history.go.kr.

이 달에 이언적이 졸하였다....(중략)...남달리 영특하였고 타고난 자질이 도에 가까웠다. 아버지를 섬김에 효성이 지극하였고, 성현의 학문에 뜻을 두어 깊이 생각하고 실천에 힘썼으며, 예가 아니면 행하지 않았고 성품 또한 과묵하였으며 힘써 재능을 숨겼다....(중략)...조정에 나설 때는 나아감과 물러섬, 의견을 아뢰에 있어 정직하고 분명하였으며, 늘 요순과 같은 임금의 백성으로 자임하였기에 비록 귀양 가 있는 중에도 오히려 정성을 다하여 조정을 잊지 않았고,...(중략)...그의 학문이 (누구에게 배운) 연원은 없으나 스스로 공자의 학문에 분발하니 은연중 빛나서 덕이 행실에 부합되고 문장이 붓끝에서 나오면 교훈되는 말이 후세에 전해져 동방에서 찾아보면 자못 비견할 사람이 드물었다. 선조 원년에 영의정에 추증하였고 시호는 문원(文元)이라 하였다.

이언적의 도학적 실천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았다.²⁸⁾ 그는 나름대로 도학의 원칙에 충실하게 살았고, 도학적 원칙 못지않게 현실도 중시했다. 을사사화 당시 이언적의 처신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오해로 말미암아 생긴 편견이었다. 그는 을사사화가 부당하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판단했다. 현실을 직시하고 가능한 한 피해의 범위와 정도를 줄이는 쪽을 택했다.²⁹⁾ 그렇다고 이언적이 결코 적당한 타협이나 절충을 추구했던 것은 아니다. 도학적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현실에 적용하려고 노력했다. 이언적은 『대학』의 ‘지선(至善)’을 중용으로 해석했다. 지선은 어디까지나 현실 속에 있다는 뜻이었다.

나중에 이언적의 학문 연원과 관련된 다툼이 이언적과 우재 손중돈의 후손들 사이에서 벌어진다. 이른바 손이시비(孫李是非)로 조선 후기 영남에서 향촌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향전(鄉戰)의 하나이다.³⁰⁾ 영남의 향전은 선조들의 학문 연원이나 배향의 위치를 놓고 후예들이 벌이는 시비의 양상을 띠었다. 그것은 18세기 후반부터 영남 남인들이 중앙정계에서 밀려나면서 생긴 여파였다. 안동의 병호시비(屏虎是非),³¹⁾ 상주의 한여시비(寒旅是非)·청회시비(淸檜是非)³²⁾와 함께 경주의 손이시비가 영남의 대표적 향전으로 꼽힌다.

이언적은 외숙 손중돈의 집에서 태어났고, 부친 이번이 일찍 타계하는 바람에 어린 시절 외숙 손중돈의 훈도를 받았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뒷날 이언적이 이룬 학문적 경지는 엄연히 그 자신의 천재성과 노력의 결실이었다.³³⁾ 당시에는 외가 경주 손씨와 본가 여강 이씨 사이에 진한 혈연에 입각한 일가의식이 있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두 가문의 혈연의식은 멀어졌고, 서로 경쟁 관계가 되어갔다. 손씨들은 손소의 적계 공신 권위와 청백리 손중돈의 권위를 내세웠다. 반면 이언적이 중앙의 문묘에 종사된 만큼 이씨들은 국반(國班)의 권위를 누렸다. ‘정승 열 명이 죽은 대제학 한 명에 미치지 못하고, 대제학 열 명이 문묘 종사 현인 한 명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문묘 종사의 권위는 대단했다. 문묘 종사 현인을 배출한 각 가문은 대대손손 어느 권문세가에 못지않은 영예를 누렸다. 문묘 종사의 권위는 특정 사건에 따라 책봉되는 공신은 물론

28) 남명 조식은 이언적에 대해 비판적이었으며, 율곡 이이도 조식과 같은 맥락에서 이언적을 폄하하였다. 李珥, 『石潭日記』.

29) 손문호, 위의 책, 150~151쪽.

30) 이수환, 「경주지역 孫李是非의 전말」, 『민족문화논총』 4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9, 303~329쪽.

31) 병호시비는 퇴계 이황의 제자 위치를 놓고 서애 류성룡과 학봉 김성일을 각각 앞세우는 병산서원과 호계서원 사이의 다툼이었다.

32) 한여시비는 한강 정구와 여현 장현광, 그리고 동강 김우옹과 한강 정구의 후예들 사이에서 학문 연원 및 위치를 놓고 벌인 다툼이었다.

33) 손문호, 위의 책, 152쪽.

종묘 배향 공신들의 권위보다 더 높았다. 이언적은 문묘와 종묘에 동시에 배향된 인물이었다.³⁴⁾ 그런 면에서 여강 이씨와 경주 손씨의 권위는 비교되기 어려웠다. 그래도 손씨가 경주의 토호이자 양동마을의 입향조인데 다 이언적의 외가라는 측면이 나름 경쟁력의 원천이었다.³⁵⁾

이황은 이언적의 행장에서 학문이나 도맥은 연원이 없다고 썼고 또 스스로 이언적의 후학이라고 명기했다. 그것은 『회재집』뿐만 아니라 『퇴계집』에도 엄연히 실려 있는 내용이었다. 게다가 명종실록에 “학문이 (누구에게 배운) 연원은 없으나 스스로 공자의 학문에 분발하니”라고 쓰여 있고, 정조가 쓴 이언적의 제문에 도 그의 학문에 대해 ‘사승(師承)이 없어 바로 염락(濂洛), 즉 중국 성리학에 소급한다’라고 언급되어 있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이언적의 학문 연원을 둘러싼 손이시비는 실제와 동떨어진 명분에 치우친 면이 강하였다. 조선 후기 영남 향전의 현상은 호서의 회니시비(懷尼是非)와 대조가 된다. 회니시비는 회덕(懷德) 송시열(宋時烈, 1607~1689)과 이산(尼山) 윤증(尹拯, 1629~1714) 사이의 시비로서 중앙 조정의 노소분열과 맞물려 정치사적 의미가 있었다. 그에 비해 영남의 시비들은 향촌 지배권을 놓고 다투는 소모적 퇴행적 측면이 다분했다.³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증구가의 고문서에는 이와 관련된 문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런 배경을 가진 이증구가는 5대에 걸쳐 1만 2천여 통의 고문서를 생산했고, 그 가운데 한문 서간이 7천여 건에 이른다.

Ⅲ. 자료의 현황과 주요 내용

1. 자료 현황

본 연구는 이증구가의 고문서 1만 2천 건 가운데 분류가 가능하면서도 가치가 높은 8천여 건을 대상으로 탈초, 해제, 감수·교열을 거쳐 DB 자료를 구축하려는 기초 작업이다. 이를 위해 연구대상 문건의 서지상 분류와 목록작업을 선행하였다. 문서 유형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이미 간행한 『고문서집성』 115집~118집의 목차 분류방식을 참고로 하여 간찰류(A), 소장류(B), 명문류(C), 시문류(D), 기록류(E), 기타(F) 등 크게 여섯 항목으로 중분류하였다. 단, 괄호안의 (A, B, C……)는 DB 구축의 편의를 위해 추가한 것이며,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문체가 비슷한 성격의 글들을 묶어서 소분류하였다. 이 분류체제를 근간으로 하여 DB 자료를 구축하는데 고문서 유형 분류를 표로 제시하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34) 문묘 대성전에는 공자를 정위로 하여 사대성인을 배향하고 있고, 공문십철(孔門十哲) 및 송조육현(宋朝六賢)과 동방십팔현(東方十八賢)의 위패를 종사하고 있다. 조선시대 문묘·종묘 동시 배향자는 이언적·이황·이이·김집·송시열·박세채 등 여섯 명뿐이다.

35) 손문호, 같은 책, 153~154쪽.

36) 손문호, 같은 책, 154~156쪽.

〈표 2〉 이충구가의 고문서 유형 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건수	비율	비고
경주 이충구가 5대 고문서 자료	簡札類(A)	安否(a)	3,463	85.8%	기초목록 및 분류작업 완료
		請託(b)			
		學問(c)			
		醫療(d)			
		時事(e)			
		冠·婚·喪·祭(f)			
		其他(g)			
		미분류(h)	3,407		기초목록 및 분류작업 미완료
	합계		6,870		-
	疏狀類(B)	教旨(a)	19	14.2%	기초목록 및 분류작업 완료
		上疏(b)	31		
		呈狀(c)	11		
		物目(d)	24		
		單子(e)	79		
	明文類(C)	試券(a)	37		
		證明(b)	22		
		通知·申告(c)	82		
	詩文類(D)	記·序·跋·銘·上樑文(a)	54		
		碑文·行狀(b)	65		
		詩文·輓詩(c)	260		
		祭文·慰狀(d)	213		
	記錄類(E)	圖錄(a)	25		
		案內(b)	18		
		處方(c)	21		
		追記(d)	9		
		擇日(e)	7		
	其他(F)	史料(a)	26		
		雜文(b)	131		
	합계		1,134		
총계			8,004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증구가의 고문서는 5대에 걸쳐 축적된 것인 만큼 유형이 다양하고, 수량도 많은 편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간찰 6,870건(85.8%)으로 본 연구의 중점대상이다. 이 때문에 간찰 만을 별도로 안부(a), 청탁(b), 학문(c), 의료(d), 시사(e), 관혼상제(f), 기타(g)와 같이 일곱 항목으로 소분류하여 정리하였다.

나머지 자료 총 1,134건은 비록 간찰류와 성격이 다르지만, 이증구와 관련된 여러 방면의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의 서간문 내용을 정확히 판독하기 위해서는 제외시킬 수 없는 사항이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 경주지역 문인들의 생활사를 이해할 수 있는 배경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도 사료적 가치가 높다.³⁷⁾

예컨대 최근 1년 동안 완료된 1,410건의 《이증구가 5대 고문서》 내용 중 수신자와 발신자가 명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증구가 5대의 이름이 수신자로 밝혀진 서간은 모두 190건이다. 이재립 19, 이능덕 13, 이증구 134 이석일 23, 이인원 1건으로 이증구의 서간이 압도적으로 많다. 수신자가 이재립인 19건의 발신자는 경주부의 호구단자와 국왕의 교지를 비롯하여 김내석(金乃錫), 이병형(李秉瑩), 유의정(柳宜貞), 면규(冕奎), 지양(芝陽), 신승구(申升求), 안수중(安琇重), 양사옥(楊士郁), 이승상(李凝祥), 정희두(鄭熙斗) 등이다. 수신자가 이능덕인 13건은 교지, 호구단자, 김진하(金鎭河), 이재립, 유건호(柳建鎬) 유기호(柳基鎬), 장기(長鬐) 현감, 백헌(伯憲) 등으로 한시도 포함되어 있다. 이석일이 수신자인 서간은 부친 이증구가 보낸 15건 이외에 장인 김면동(金冕東)과 김규화(金奎華) 편지 등으로, 가족의 안위와 학업 정진을 독려하는 내용들이다.

이증구가 수신자인 서간은 호구단자 7건, 교지 및 차첩 7건을 비롯하여 경양재(鏡陽齋) 회중의 당장(堂長) 추대, 대구향교도회(大邱鄕校道會)의 망기(望記) 등 총 134건이다. 이 가운데 박선빈(朴善斌)·이재중(李在種)·이능호(李能皐)·이능렬(李能烈)·이능복(李能馥)·이정구(李庭久)·이장연(李章淵) 등과 인척 김면동(金冕東)·김규화(金奎華)·김규형(金奎衡)·김기동(金驥東)·손정엄(孫廷琰)·손세희(孫世熙)·김현락(金絃洛) 등 친인척으로부터 받은 편지가 많다. 주요 내용은 안부를 묻고, 관직 생활에 따른 노고를 위로하거나 과거의 시행시기, 관직 이동, 한양 소식 등에 관한 것을 담고 있다. 특히 이증구의 과거 급제 동기와 관료 생활을 함께 한 양반, 경주 및 인근 지방의 관료, 고향 지인들과 주고받은 서간이 많으며 내용도 풍성하다. 주요 인물들로 김병항(金秉瓚), 김사옥(金思玉), 김소락(金紹洛), 김중언(金中彦), 오광응(吳光應), 이심구(李深久), 장교원(張敎遠), 노영경(盧泳敬), 최만선(崔晩善) 최현식(崔鉉軾) 최현필(崔鉉弼), 최현규(崔弦珪), 한상원(韓尙源), 최규현(崔珪鉉), 남교운(南敎允), 이흥로(李興魯), 정대화(丁大和), 이만규(李晩燐), 남희조(南熙朝), 황술(黃術), 권상문(權相文), 이두영(李斗榮), 김대락(金大洛), 김대식(金大植), 이종형(李鍾澄), 유교영(柳喬榮), 유덕영(柳德榮), 유영우(柳永佑), 정재교(鄭在敎), 박해령(朴海齡), 김용복(金容復), 최두영(崔斗永), 김원룡(金元龍), 박인봉(朴仁鳳) 등이 보인다. 이들이 주고받은 서간 내용은 안부, 청탁, 시사, 문학, 학문, 건강 등 동시대 향촌 양반들의 일상을 세밀히 엿볼 수 있는 것들이다.

37) 본 연구에서는 1,134건의 고문서 자료 또한 DB 자료목록에 포함시켜 진행하고 있다. 2017년 9월부터 시작된 이증구가 고문서의 정리 및 탈초, 해제는 총 5년 계획으로 8,004건 중 4,800건이 완료되었으며 2022년 8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중구가 5대의 발신 서간은 모두 97건으로 이재립 43, 이능덕 5, 이중구 47, 이석일 2, 이인원 0건으로 확인된다. 이 서간들은 전달수단이나 전달자를 구하지 못해 미쳐 보내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고 일부는 부자 간 간찰이다.

2. 가족 사랑의 애절한 편지

(1) 장인과 사위의 이야기

이중구의 5대 가문에 전해지는 총 8천여 통의 편지를 보면 참으로 발신자가 다양함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 김진형(金鎭衡)이 사위 이능덕에게 보낸 편지를 살펴봄으로써 150년 전에 장인과 사위가 어떤 내용의 편지를 주고받았는지 엿볼 수 있다.³⁸⁾

이능덕은 16세에 의성 김씨 집안에 장가드는데 장인이 김진형이다.³⁹⁾ 현재까지 이들이 주고받은 문서로 파악된 것은 8통의 편지가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자료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대상으로 연도에 따라 어떤 사연이 있는지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⁴⁰⁾

1843년 5월 6일 김진형이 사위 이능덕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여름철에 공부하면서 잘 지내고 있음을 알겠지만 딸의 건강이 좋지 않으니 걱정이 되어 머리가 하얗게 되었다”라고 하였다.⁴¹⁾

1848년 11월 1일 편지는 해산날이 다 되어가는 딸을 걱정하는 친정아버지의 마음이 가득 담긴 내용이다.⁴²⁾ 딸아이가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가, 미리 예방하는 것도 지혜로운 일이다.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사위 이능덕에게 딸의 해산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하였다. 덧붙여 대추 몇 말을 보내니 삶아서 외손자에게 먹이면 좋겠다고 하였으며 아울러 돈 1냥(兩)을 보내니 산당의 아이에게 보혈(補血)하도록 하였다. 태어나지도 않은 외손자에 대한 외할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해산을 앞둔 친정아버지의 지극한 마음을 담담한 필체로 잘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자신은 겨울이 되자 종종 병이 들어 음식량이 줄어드는데 쇠약한 징후라 하고, 대평(太平) 유치명(柳致明)은 근래 평안히 지내면서 문집을 교감하는 일로 사빈서원(泗濱書院)에 갔다고 들었다면서 이능덕의 스승인 정재(定齋)의 소식도 아울러 전하였다.⁴³⁾ 또한 이능덕의 조모가 작고하여 보낸 위장(慰狀)과 조모의 소상(小祥)에 보낸 위장이 있다. 상사(喪事)는 인륜의 큰일로, 상이 난 집 안에 조문하고 부의를 보내는 것은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위장(慰狀)은 초상난 당시에도 보내지만 소상(小祥)과 대상(大祥) 때도 계속 보

38) 이능덕(李能德, 1826~1861)의 자는 구길(九吉), 호는 치재(恥齋)이고, 정재(定齋) 유치명(柳致明)의 제자이다.

39) 김진형(金鎭衡, 1801~1865)의 본관은 의성(義城), 자는 덕추(德鍾)이며, 호는 겸와(謙窩) 또는 청사(晴蓑)이다. 벼슬로는 홍문관 교리, 부승지를 역임하였다. 작품은 1853년 함경도 명천(明川)에 유배 갔을 때 지은 〈북천가(北遷歌)〉 등이 있다.

40) 《이중구가 5대 고문서》, 34-G251·G253·G260·G264·G266·G267·G289.

41) 《이중구가 5대 고문서》, 79-J295. 이 편지의 발신자는 김진하인데 김진형과 동일인이다.

42) 《이중구가 5대 고문서》, 34-G289.

43) 안동에 있는 사빈서원(泗濱書院)은 사원(泗院)이라고도 칭한다. 당시 정재 유치명이 제자들과 함께 이곳에서 《학봉집(鶴峰集)》을 교감(校勘)하고 있었는데 본 편지를 통해서도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냈음을 알 수 있다.

1849년 8월 10일 편지는 조모를 잃은 이능덕을 위로하면서 산소를 쓸 때 각별히 조심하라고 당부하였다. 여기서 산소를 정할 때는 형제산(兄弟山)⁴⁴⁾을 입구로 삼으면 대강(大江)과 바다, 그리고 장기(長鬚)가 펼쳐진 형세가 되어 만대까지 영화를 누릴 터전이라 하였다. 그렇지만 요즈음 풍수가들의 말은 믿을 것이 못 된다고 하면서, 혈(穴)도 제대로 잡지 못하여 그들의 말만 믿다가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풍수가를 맹신하지 말라고 넉지시 충고를 하고 있다.⁴⁵⁾

1850년 6월 19일 편지는 조모의 소상 때 보낸 것인데 대추 한 말과 제수(祭需) 대신에 위로금으로 2냥(兩)을 보낸다고 하였다.⁴⁶⁾ 이능덕의 부친 이재립의 소상과 대상을 맞아 위로하면서 보낸 편지가 있다. 1854년 3월 29일 편지는 소상 때 보낸 것으로, 소상 때 한 번 찾아가 영전에 곡을 하고 싶지만 가난 때문에 몸을 빼낼 수가 없다고 한탄하면서 말린 대추 한 말을 보내니 제수(祭需)에 쓰라고 하였다. 아울러 묘지 문제로 부락 사람들과 갈등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혜롭게 대처해야 하며 슬픔을 억제하고 변화에 순응하기 바란다고 하였다.⁴⁷⁾

1855년 3월 20일 편지는 대상 때 보낸 것이다. 마음은 있지만 몸이 따라가지 못해 밤낮으로 동쪽을 바라보며 슬퍼할 뿐이다. 어느덧 자네 부친의 대상이 되었는데 영전에 찾아가 한 번도 곡을 하지 못했으니 애통할 뿐이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였다. 나 역시 노쇠한 몸이 되었으니 지하에서 그대 부친을 볼 날이 있지 않겠는가. 슬픔을 억제하고 변화에 순응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⁴⁸⁾

1854년 11월 23일 편지는 둘째 딸 혼처를 부탁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겨울 날씨가 매우 춥다. 세상사 모두 잊고 지내며 관직을 그만둔 후로 만사에 의욕이 없으며 세상사를 묻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다. 곧장 강호(江湖)로 들어가 모든 것을 잊고 지내고 싶다는 심정을 전하는 말로 서두를 장식하였다. 이어서 금년에 열두 살인 둘째 딸 혼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고민이다. 사극(士極) 형의 외손자가 열두 살이라고 하던데 그쪽으로 알아보고자 하니, 신경을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고 허술하게 여기지 말기를 바란다고 하였다.⁴⁹⁾

1860년 12월 20일 편지는 연말에 안부를 묻고 인사차 보낸 것이다. 한 해가 가는 것이 마치 수레가 구르는 것처럼 빠르다. 우울하던 차에 보내준 편지를 받으니 자리를 마주한 것 같으며, 딸도 아이를 키우면서 잘 지내고 있음을 알아 위로가 된다. 자신은 이제 칠십 고개를 넘게 되었는데, 여러 집이 무탈하고 시주(詩酒)가 넉넉하니 좋다.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소식을 전하겠다고 하였다.⁵⁰⁾

44) 형제산(兄弟山)은 일명 형제봉이라고 하는데 경주시 도지동과 동방동에 걸쳐 있으며 높이 289m이다.

45) 《이중구가 5대 고문서》, 34-G266.

46) 《이중구가 5대 고문서》, 34-G253.

47) 《이중구가 5대 고문서》, 34-G264.

48) 《이중구가 5대 고문서》, 34-G267.

49) 《이중구가 5대 고문서》, 34-G251.

50) 《이중구가 5대 고문서》, 34-G260.

(2) 출가한 자녀에 대한 염려

며느리를 보는 날, 딸은 오지 않고 사위만 오자, 딸 사돈이 사돈에게 보낸 아쉬움이 절절하게 배어난 편지가 있다.

딸아이에게 바람을 끌고 산 지 오래이나, 딸을 난 불행을 오늘에야 비로소 크게 깨달았다. 인정에 한 번 보고자 하는 바람을 금할 수 없는데 사돈께서는 인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다면 10년을 보내오지 않아도 사돈의 뜻이 어떤지만 바라봐야 하는가? 어찌 감히 내 사사로운 마음을 사돈에게 번거롭게 말하겠는가? 다만 괴로운 심사가 간혹 미칠 것만 같으니 어찌하겠는가? 가을이면 보내주겠다고 하니 더없이 감사하고 감사하다.⁵¹⁾

손녀딸에 애태우는 친정 할아버지의 애달픔을 살필 수 있는 글도 있다. 1908년 10월 9일에 김규화(金奎華)가 손녀사위 이석일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래와 같이 쓰고 있다.⁵²⁾

손녀딸의 경과를 듣고서 창자가 쪼고 머리가 아프다. 저런 약골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고 제 한 몸을 지탱하는지……그 남편이란 사람이 아내 한 사람을 편하게 할 방법이 없단 말인가? 애뜻한 마음이 연이어 잊히지 않는다. 이 또한 그의 운명이겠지 어찌겠는가? 어찌겠는가? 만삭의 임신부가 어떻게 이 일과 이 고생을 견디어내는지 민망하기 그지없어 먹고 자는 일이 편치 못하다. 만일 가까운 곳이면 어떻게 해볼 수 있으면만 삼백리 길이니 힘이 미칠 수 있겠는가? 무익한 걱정만 혼자서 할 뿐이다.

손녀사위의 마음도 안타까웠을 것이다. 편지는 다시 이어진다.

(일을 도울 우리 집안) 늙은 계집종을 보내보려고 온갖 수단을 써서 말해 보았지만 갈려고 하지 않는다. 나이 많고 병 많으니 그곳으로 간다 해도 걱정거리 하나를 보태주는 일이다. 그 계집종의 자식이 늙은이의 병을 핑계로 말을 듣지 않으니 강요할 수도 없다. 어찌겠는가? 어찌겠는가? 동경은 큰 고을이다. 어떻게 신실한 노파 한 사람을 구할 수 없단 말인가?

산파에 의지해 출산하던 때, 아내, 며느리, 딸, 손녀 등의 순산은 온 가족의 바람이었다. 계년(癸年) 12월 11일에 김규화가 손녀사위 이석일에게 보낸 편지는 연약한 손녀딸의 해산이 가까워지니 멀리서 걱정이 끝이 없다는 것과 둘째 아이 집에서는 손자의 해산이 무슨 병인지 지연되고 있어 애타는 마음을 견디기 어렵다는 사연이 담겨있다.⁵³⁾ 또한 종손녀(從孫女, 이증구의 며느리)가 임신 중에 건강하지 않다는 말을 듣고 더없이

51) “女阿絕望久矣。生女之不幸，今日始爲大覺。人情不能禁，一見之願，而兄之不諒人情，既如是，則雖十年不送，惟冀教意之如何，何敢以私情煩函哉。但苦懷/往往欲狂，此將奈何。秋間命送之教，極感極感”，《이증구가 5대 고문서》，73-1731.

52) “孫女經過，聞極腸消腦碎。以此軟軟殘質，何以堪其役，而保其身也。爲其夫者，其無安保一妻之道耶。爲之戀戀難忘。此是渠之身命所使，將奈何奈何。滿潮孕婦，何其堪此役此苦也。悶迫悶迫。寢食靡甘，若地邇，則有如爲之道，而十舍長程，何以及綿力耶。徒費無益之心而已。……老婢事，萬端開喻，萬無去意，年老多病，去亦添憂。彼亦人子，以老病不能從命，此亦不可強迫，奈何奈何。東京大矣，豈不得信實一老婆耶”，《이증구가 5대 고문서》，99-763.

걱정된다면서 임신한 종손녀의 일을 대신할 늙은 여종을 보냈다.⁵⁴⁾

1843년 11월 1일에 김진하가 이재립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정기산 등 약물을 복용하고, 명태 곤 것을 열 마리쯤 미리 복용하면 산부가 정기산의 약 기운이 다할 때 기운이 탈진되지 않는다.”라고 쓰고 있다.⁵⁵⁾ 1916년 9월 7일에 최현필이 지인에게 보낸 편지는 아래와 같이 적고 있다.⁵⁶⁾

중구(重九, 음력 9월 9일) 날의 약속은 거듭 애쓰지 않은 것이 아니었으나 셋째 며느리의 산달이 마침 그달이다. 늙은이의 손자를 기다리는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다. 여러 날을 비울 수 없는 형세여서 백 번이나 생각했다가 그만 접기로 하였다.

조선 후기나 20세기 초의 시간 차이를 떠나 걱정과 긴장 속에서 순산을 위해 처방전을 마련하는 시아버지의 진한 정을 엿볼 수 있다.

김규형은 종손녀의 시아버지 이증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종손녀가 아이를 해산한 뒤 젖이 부족하다고 하니 안타까워하였다. 또 손녀의 우례(于禮, 신부가 처음으로 시집으로 들어가는 예식)가 다음 달 11일로 정해졌는데 세상이 험하고 길이 멀어서 매우 걱정된다고 하면서, 도적 떼가 그치지 않아 원근에서 들린 소문이 두렵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였다.⁵⁷⁾ 김규화는 손녀의 시아버지 이증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어제 헤어질 때 걸음걸음마다 슬픔이 흘러넘치고 밤새 그리움이 넘쳤다. 아울러 손녀의 마른 모습이 잠시도 잊히지 않는다.”라고 한없는 사랑을 표시하였다.⁵⁸⁾

3. 시국 문제와 향촌 활동

(1) 감모궁(感慕宮) 건립 모금의 폐해

감모궁(感慕宮)은 명성황후(明成皇后) 민비(閔妃)를 추모하기 위해 임오군란 때 그가 피난했던 충주 장호원(長湖院)에 건립한 건물로 장호궁(長湖宮)이라고도 한다. 이 건물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모금 운동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경상도에서 토색질이 심하였다. 그 실상이 《고종실록(高宗實錄)》 41년 9월 9일자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1904년 7월 7일 최현필이 친지에게 보낸 편지는 감모궁 건립에 쓸 돈을 배정한 기록이 있는데 이를 소개하면, 감모전(感慕錢, 감모궁 건립에 쓸 돈)을 배정했는데 상등(上等) 군(郡)은 4천 냥(兩이 넘지 않지만 우

53) 《이증구가 5대 고문서》, 62-1171, 1172.

54) 《이증구가 5대 고문서》, 62-1187.

55) “第服正氣散等藥物，而明太膏，限十杼預服，則氣不被奪於正氣散之漸降。” 《이증구가 5대 고문서》, 73-1736.

56) “重九之約，非不申動，而第三婦彌月適值，白首待孫，良可苦哉。勢不可曠費多日，故百思旋停。” 《이증구가 5대 고문서》, 99-779. 최현필(崔鉉弼 1860~1937)의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수헌(修軒), 승정원 가주서를 역임하였다.

57) 《이증구가 5대 고문서》, 62- 1182.

58) “昨別，步步流悵，經宵耿耿，如物貫中。卽拜審漢環，仕體連旺，孫女將雛一穩，其戍削貌樣，不可暫忘得也。” 《이증구가 5대 고문서》, 67-1446.

리 군(郡)에 2만 냥을 할당하였고, 이능기(李能琦)·서경석(徐璟錫)이 도감(都監)이 되어 관원과 부자들을 9 등급으로 나누어 배정하려 한다고 했다. 발신자는 이 군에서 하는 일이 추잡하다고 하면서 차라리 바다로 도망가고 싶다고 하였다.⁵⁹⁾

1904년 7월 20일 이종형이 이증구에게 보낸 편지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 장호궁을 짓느라고 돈을 배당하는 일이 어제 향회(鄉會)에서 논의되었지만 공평하지 못하여 지금 다시 논의 중이라고 하였다. 발신자 자신은 요즈음 경제력이 매우 궁핍한데 4등(四等)으로 되어있어 살림살이에 감당할 수 없다면서 자신의 등급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⁶⁰⁾ 이 편지를 보낼 때 동봉한 협지(夾紙)에는 자신의 사촌도 근근이 살고 있어 애당초 요호(饒戶, 부잣집)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잘못 편입되었다며 이번에는 특별히 헤아려 잘사는 집에 편입되지 않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⁶¹⁾ 이종형은 각자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모금액에 반발하며 등급의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2) 외세에 대한 우려와 신문명의 감상

1904년 6월 20일에 김대락이 이증구에게 보낸 편지는 일제의 경제침탈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않고 있다. 시국 소식을 들으니 팔도(八道)의 선비 4천여 명이 서울에 모여서 산림천택(山林川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상소를 올리려 하는데, 왜인 군대가 선비들을 잡아 가둔다고 하니 통탄스럽다는 내용이다.⁶²⁾ 같은 날 국조(國祚)가 이증구에게 보낸 편지도 마찬가지로 우려를 하고 있다. 나라에서 산림천택을 일인에게 준다고 하여 서울로 간 사람이 4, 5천 명이나 되는데 일본인에게 구타를 당하여 나라가 걱정된다고 하였다.⁶³⁾

1904년 11월 7일에 김규화가 손녀의 시아버지 이증구에게 보낸 편지는 러일전쟁의 근황을 언급하며 일제의 노골적인 침략행위에 울분을 감추지 않고 있다.⁶⁴⁾ 그 내용은 러일전쟁을 권재형(權在衡)을 보내 관찰하게 했더니 돌아와서 하는 말이, “일본은 군사와 군량을 산처럼 쌓아두고, 러시아는 군량이 없어 천 리를 패해 달아나며 다시 돌아온다”라고 했다. 그 뒤로 일인은 더욱 방자해지고 우리나라의 군신은 재갈이 물려 손을 쓰지 못하니, 이런 삶은 죽느니만 못하다고 탄식하였다.

59) “……感慕錢事，自上酌定，上等郡不過四千餘兩，而吾郡則方以二萬兩排定計，摺紳及饒戶，任自抄出，李能琦徐璟錫爲都監，摺紳及饒戶，分爲九等，方擬排定，而不決已十餘日矣。醜哉，此郡之所爲，寧欲乘桴浮海而逃耳。”，《이증구가 5대 고문서》，54-H511.

60) “……長湖宮排錢事，前日鄉會，果有不公，而今承公議齊發，更爲鄉會之教，雖此昧事者，敢不赴赴，以參席末，而所苦如右，莫之遂意，伏恨伏恨。鄙家年來蕩竭，一鄉共知，何必待渠之分疏哉。前排之入四等，不但力所難堪，此後此等事，此錄爲謄錄，則豈非來頭深遠之處乎。今番則秉公如尊座下，弟念渠如尊座下，首先發議更圖，政如渠力綿者，伸枉之秋也。幸須另力回公，低又低之，無使如前過等，專仰專仰。餘伏不備謝候禮。”，《이증구가 5대 고문서》，65-I340.

61) “從君家勢，僅僅新舊相繼，本不當入於饒戶中，而誤入於前錄，今番則另圖拔之，千萬切仰切仰。”，《이증구가 5대 고문서》，65-I341.

62) “……時毛聞之，則八路會士，四千餘名，抵於京府，山林川澤，未奪之意，上疏之地，倭人幾許千兵，方將會士提囚云，聞甚寒心矣。此將奈何奈何，浩歎浩歎。《이증구가 5대 고문서》，65-I342. 김대락(金大洛, 1845~1914)의 본관은 의성(義城), 자는 중언(中彦), 호는 백하(白下)로 독립 운동가이다.

63) “……且此日自隊中風說，以山川園林之許給日人之由，上疏者，種種協會，亦至四五千名矣。盡爲日人所打捕，大生風浪，京城甚擾云，此若果然，則時事可知。益切柴室之憂已耳。餘何時更握，據此腔裏否。忍痛艱謝。《이증구가 5대 고문서》，65-I343.

64) 《이증구가 5대 고문서》，61-I192. 67-I428의 협지(夾紙)이다. 김규화(1837~1917)의 본관은 서흥(瑞興), 자는 문직(文直), 호는 소초(小楚)이다.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를 역임하였다. 창녕(昌寧)의 창락(昌樂)에서 살았으며, 저서로 『소초집(小楚集)』이 있다. 손녀가 이증구 아들 이석일과 결혼하였다.

또한 일본이 주도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관직 수요의 축소를 우려하는 편지도 있다.⁶⁵⁾ 그에 따르면 하야시 곤스케(林權助)가 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대신할 것이라고 하는데, 내년 봄에는 읍의 숫자를 줄이고 관원 숫자도 줄이면서 각부의 주사를 대다수 줄인다고 하니, 우리는 어떻게든 득 될 일이 없을 것 같다는 등의 내용이다.

1904년 11월 동지 후 5일에 김규화가 손녀의 시아버지 이증구에게 보낸 편지도 일본의 변화가 갈수록 달라지고 도적 무리가 사방에서 횡행해서 하루도 안심하고 지낼 수 없다며 수신자가 사는 곳 인근의 안위를 묻고 있다.⁶⁶⁾

1905년 7월 23일 남희조(南熙朝)가 이증구에게 보낸 편지는 서구 열강의 침탈로 물밀듯이 밀려든 신문명의 이기들이 낮설게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발신자는 옥산서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서울을 갔다가 13일 만에 되돌아왔는데 차로(車輅)가 매우 신속하다고 하였다. 편지 중에 “정말 차로의 신속함은 바람이 달리고 번개가 당기는 것과 같음을 느꼈다(儘覺車路之迅, 如風馳電掣也).”라고 했는데 경주와 서울 왕복에 경부선 철로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⁶⁷⁾

이 시기는 청일전쟁의 뒤이어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조선을 보호국으로 만들려고 경제적 군사적 침탈은 물론 식민정책을 노골적으로 강요하던 때이다. 그 영향이 전국 곳곳으로 파급되었고, 지방 유생을 중심으로 반일 움직임이 있었지만 식민지의 운명을 피하지 못하였다.

(3) 향촌의 공공영역 활동

1909년 2월 20일 이후 동문사(同文社) 사장이 이증구에게 보낸 편지에 동봉된 자료가 있다.⁶⁸⁾ 이 문서에서는 근대 출판사인 동문사의 설립 취지와 발기자의 명단을 밝히고, 교정을 부탁하였다. 이를 소개하면, 중국의 진한(秦漢) 이후 역대 전적(典籍)에 대해서는 지금 사대부들이 모두 잘 말할 수 있으면서 우리나라 고사에 대해서는 아주 어두운 이 것은 자기를 버려 없애는 위인지학(爲人之學)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5백 년 이래로 국조실록이나 명신언행록 등 서적이 매우 많고 문장도 다양하며 풍부하지만 일가의 문장을 이루지 못하고, 산골에서 절개와 의리를 지킨 사람, 고을의 효자와 열녀, 길거리에서 떠도는 이야기, 민간에 떠도는 야사 등이 잡다한데도 전집을 이룰 수 없으며, 심지어 패담소설(稗譚小說, 민간 이야기) 등의 책을 모두 외국에서 사들이며 정작 우리나라에 없다고 하는 사류들을 안타깝게 여겨서 동문사를 설립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전해온 이야기, 옛사람이 남겨둔 글, 여러 왕조의 문헌과 여러 집에 소장한 책, 교과서적 등을 널리 모아서 간략히 하고 종류별로 분류하여 보기 편하고 분명하게 책을 만들었다면서,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후세에 기술할 것이 없다며 이것이 동문사를 설립한 이유라고 밝혔다.

동문사는 『은세계(銀世界)』(1908년)와 『초등수신(初等修身)』(1909년) 등을 간행한 출판사로 근대문학사

65) 《이증구가 5대 고문서》, 67-1431.

66) 《이증구가 5대 고문서》, 61-1189.

67) 《이증구가 5대 고문서》, 66-1398. 경부선은 1904년 12월 27일 완공되어 1905년 1월 1일을 기해 영업이 개시되었다. 따라서 이 편지 작성일의 ‘乙’을 1905년으로 추정하였다.

68) 《이증구가 5대 고문서》, 37-G401.

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출판사이다. 이 문서가 이증구에게 보내질 때는 『명신록(名臣錄)』이 간행된 이후인 듯하다.⁶⁹⁾ 이런 이유로 동문사에서는 편록에 들어갈 글을 선별하기 위해 경북의 41개 군(郡)에 통문을 보내고 모임을 열기도 하였다.⁷⁰⁾ 또 이증구에게 지사의 교정(校正)을 부탁하는 쪽지를 보내기도 했다.⁷¹⁾

근대이행기에 전통과 신문명의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전제군주시대 향촌 지식인의 존립 기반인 예교와 경사잡류(經史雜類)의 학문 전통이 심각하게 도전받는 상황에서 서구에서 강제로 이식된 교육문화와 사회질서를 수용하고 정착시키는데 앞장선 계층이 과거 출신의 지식인이었다.

관직에서 물러난 이증구는 경주 양동마을에 머물면서 인근 지역의 공사(公私)를 불문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향론 주도자이자 향촌 지식인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예컨대 1922년 4월 25일 대구향교도회(大邱鄕校道會)에서 이증구에게 보낸 망기(望記)가 있다. 전 교리 이증구를 한강노선생문집중간(寒岡老先生文集重刊), 미수선생년보중간(眉叟先生年譜重刊), 성호이선생사설간역소(星湖李先生僊說刊役所) 도청(都廳)으로 추천한다는 내용 등이다.⁷²⁾ 1923년 12월 19일에는 경양재(鏡陽齋) 회중이 이증구에게 당장(堂長) 추대를 알리는 망단자(望單子)를 보냈다.⁷³⁾

1922년 9월 30일 김원룡이 이증구에게 보낸 편지는 선친의 묘갈문을 지어준 수신자에게 감사를 표한 것이다. 일의 형편상 마땅히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할 것이지만 잡무로 해서 마음먹은 대로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하는 내용이다.⁷⁴⁾

1924년 7월 15일 박인봉(朴仁鳳)이 이증구에게 보낸 편지는 반월정의 기문(記文)을 의뢰하고 있다. 발신자의 선조 관재공(寬齋公)은 밀주(密州) 팔현(八賢)의 한 사람인데, 반월정(半月亭)을 그 묘소 아래에 짓고 관재공이 남긴 시 작품을 걸어두어 재계하며 제사 지내는 곳으로 삼았다. 정자의 서쪽 편을 여재각(如在閣), 동쪽 편을 수유실(垂裕室)이라고 하였는데, 이증구가 관재공의 옛 시에 화운(和韻)해 주시면 영광이라 하고, 정자의 향배(向背)와 관재공의 시는 별도로 올린다는 내용이다.⁷⁵⁾ 또 다른 편지에는 정자의 자세한 위치와 주위 지명을 동서남북 사방으로 나누어 소개했는데, 북쪽에는 ‘주마룡(走馬龍, 달리는 말의 산줄기), 즉정지후룡(即亭之後龍, 바로 정자의 뒷 산줄기), 소장양령(小長陽嶺, 소장양 고개)’과 같은 것이다.⁷⁶⁾

1924년 8월 3일 박인봉이 이증구에게 보낸 편지는 감사의 내용이다. 여기서 조상의 정자(亭子)를 묘소 아래로 옮겨 짓고 수신자에게 정자 기문을 받아 현판을 걸고 보니 광채가 나서 매우 감사하다고 하였다. 또 비갈문(碑碣文)은 삼가 받았는데 화운(和韻)이 봉지에 없으니 혹시 누락한 것이 아닌지 확인해달라고 하였다. 정자 건축 작업은 상량을 했으나 아직 서까래를 못 올렸는데 준공되면 화운을 기대하여 연락을 올리겠다고 하는 등의 내용이다.

69) 《이증구가 5대 고문서》, 37-G402.

70) 《이증구가 5대 고문서》, 37-G401.

71) 《이증구가 5대 고문서》, 37-G404.

72) 《이증구가 5대 고문서》, 91-391.

73) 《이증구가 5대 고문서》, 89-280.

74) 《이증구가 5대 고문서》, 94-514.

75) 《이증구가 5대 고문서》, 72-1692.

76) 《이증구가 5대 고문서》, 72-1691.

4. 일제강점기의 서간

(1) 퇴위한 고종의 복국(復國) 운동

1910년 경술국치 이후 고종(高宗)은 망한 나라를 회복하고자 일본과 담판을 벌일 인재를 찾았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졌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엄혹한 시대 고종의 비원을 받아든 선비의 두 모습과 그런 인재를 찾아 나선 김세동(金世東, 1870~1942)의 발자취가 본 연구 자료에 포함되어있다. 1912년 5월 고종이 보낸 전유문(傳諭文)이나 6월에 김세동과 고종이 회계(回啓)하고 회유(回諭)한 것을 베껴둔 문서는 당시 은밀히 행해졌던 고종의 복국 운동을 확인할 수 있다.⁷⁷⁾

고종은 김세동을 도해봉명사(渡海奉命使)로 삼고, ‘일본에 건너가서 일왕과 담판을 지을 사람(日本談辦使)’을 찾았다. 고종이 선택한 사람은 전 교리 이증구와 특임관(特任官) 노영경(盧泳敬, 1845~1929)⁷⁸⁾으로, 이들에게 밀지를 내렸다. 1912년 5월 3일의 일이다. 이 밀지 끝에 고종이 손수 지은 것임을 뜻하는 말 “덕수궁 수결 개국 521년 음 5월 3일 친히 짓다.”라는 문장으로 미루어 비밀 유지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자신을 덕수궁으로 칭하고 있음도 이채롭다.⁷⁹⁾

고종의 밀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5백 년 종묘사직이 나에게 이르러 망하였다. 하늘 아래 목숨을 유지하며, 백성을 향해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이 물염치하다. 순국하는 일 이외에 아무 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역사에, 종묘사직에, 신민에게, 천하에 아무런 노력도 없이 간다는 것은 너무 원통한 일이다. 다행히 나라를 위해 열혈 보국 하려는 신민이 있어 지금 종친 이승갑(李承甲)과 민창식(閔昶植)이 서북 지역으로 떠났다. 원통함을 호소하기 위해서다.⁸⁰⁾

여기서 서북은 다른 문서에서 용만(龍灣, 신의주)의 북쪽으로 변한다.⁸¹⁾ 용만의 북쪽이면 중국일 수밖에 없고, 이곳 정세를 살피려고 보낸 정관식(鄭寬植)이 다음 달(7월) 보름 이후에 돌아올 것이라는 말로 유추해 보면 용만의 북쪽은 당시 중국의 수도였던 북경일 가능성이 높다. 왕래하는데 소요되는 날짜가 거의 두 달이니 이런 추정이 가능하다. 곧 중국에 도움을 청하려 한 것이다. 이 시기의 중국은 신해혁명으로 아시아 최초의 공화 국가인 중화민국이 수립되었고, 혁명과 쑨원이 청조의 완전한 퇴위를 위해 총통직을 위안스카이에게 넘겨준 격변기였다. 이런 정황 속에서 고종의 염원은 애당초 실현 불가능했다. 그러나 고종이 중국과 일본을

77) 《이증구가 5대 고문서》, 84-042, 043, 044, 045.

78) 노영경의 본관은 광주(光州), 자는 경함(景咸), 호는 흠재(欽齋)이다. 노수신의 후손으로 1877년(고종 14)에 문과 별시 병과에 급제하여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때 고종을 호위하였다. 1888년 동부승지와 1890년 안변부사를 거쳐 경주부윤과 특진관을 지냈다. 1905년 을사늑약 체결 후 여러 차례 조약의 폐기를 상소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고향 동래로 내려가 은거하며 말년을 보냈다.

79) “德壽宮御押, 開國五百二十一年陰五月三日, 親製.” 《이증구가 5대 고문서》, 84-045.

80) 《이증구가 5대 고문서》, 84-045.

81) 《이증구가 5대 고문서》, 84-042.

대상으로 어떤 형태로든 북국의 방도를 찾으려 애쓴 흔적은 아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⁸²⁾

김세동을 일본에 보내 답판을 벌이고자 하는데 한두 사람의 힘으로 될 일이 아니다. 그런데 삼남(三南)이 내 생각에 냉담하다. 이것도 나의 잘못이 아니겠는가? 그대가 문원공의 후손이어서 다른 사람과 다를 것으로 생각한다. 그대가 죽을 각오를 하여 내게 순국할 기회를 만들어 준다면 다행이고 감격할 일이다. 못다한 말은 김세동이 모두 말할 것이다. 문원공 봉사손(奉祀孫)에게도 이 글을 함께 보여주도록 하라.

고종의 밀지를 전해 받은 이증구와 노영경의 태도는 사뭇 달랐다. 먼저 김세동은 이 일을 위해 기왕에 곽종석(郭鍾錫)을 찾았다가 거절당하며 치욕스러운 말을 들어야 했다. 다시 찾은 인재가 이증구와 노영경이었다.

1912년 6월 15일 김세동은 고종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지난달 5월 22일 전 교리 이증구와 특진관(特進官) 노영경에게 왕의 뜻을 전하라는 책무가 신에게 내려졌다. 그 일을 위해 이증구를 찾아 명령을 전했다. 유서(諭書)를 붙들고 반나절을 통곡하며 다른 말 없이 일본에 갈 날짜만 정해주면 바로 떠나겠다고 하였다. 이언적의 봉사손 이하 여러 유림 학자들도 지당한 결정이라 하였다. 다음으로 노영경을 찾아 명령을 전하였는데 신과 출신이 같은 도(道) 사람이지만 처음 만나 보았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아경(亞卿) 벼슬에 올랐으며, 이 일에 선발되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었다. 널따랗고 처마도 높직한 집에 살면서 교만하기 그지없었다. 순국을 기대하기는커녕 전하에 대한 욕된 말을 신이 차마 아뢰는 문건에 담을 수 없어 그가 했던 말은 신해석(申海碩)에게 말로 아뢰게 하였다. 밀유(密諭)도 전하지 않고 되돌려와 반납하며, 이증구에 대한 처리를 내려주기 바란다는 내용이다.⁸³⁾

일본의 왕이나 대신과 답판을 벌이고 순국을 각오해야 하는 임무를 두고 이증구는 62세의 나이로 흔쾌히 받아들여 일본으로 가려고 했다. 반면 노영경은 오히려 고종의 무모함에 욕을 퍼부었다. 기울어가는 조선을 어떻게든 구하려고 목숨이라도 바칠 신하가 있었는가 하면,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왕실과 군주에게 욕을 쏟아내는 신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당시 선비사회의 서로 다른 기류를 엿볼 수 있다.

1912년 6월 18일 김세동이 보고한 문서에 대한 고종의 회답은 다음과 같다.

그대가 기왕에 곽(郭 郭鍾錫을 의미한 듯)에게 당한 치욕도 씻지 못한 터에 노영경에게 또 당하다니 모두가 내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 탓이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증구는 그렇게 열렬하다니! 오늘 일본에 가는 일이 희망이 없다면 군신이 사직에 목숨을 바친 뒤 지하에서 저절로 서로 하례할 날이 있을 것이다. 이증구를 칙임관(勅任官 정1품~종2품)으로 임명하기 어려우니, 주임관(奏任官, 3품~6품)의 자격일지라도 문원공의 후손으로 명망 없는 한미한 집안의 1품관보다 나을 것이다. 다만 일본의 목인(睦仁)이 어제 죽었다. 이른바 새 왕(大正)이라는 자가 아버지 시대의 일은 그대로 지키겠다며 나 몰라라 하게 되면 목인이 살았을 때 행한 것만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특별히 일본의 조선에 대한 처사를 의리 차원에서 헤아린다면 목인이 살아있

82) 《이증구가 5대 고문서》, 84-042.

83) 《이증구가 5대 고문서》, 84-042.

을 때 보다 나을 수도 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한두 차례의 답판이 없을 수 없다. 용만의 사정을 살피려 간 정관식이 다음 달 보름 이후 돌아올 것이니 용만의 일을 알고 떠난다면 일본과의 답판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증구에게 유지(諭旨)를 전한 후 이미 허락한 여러 사람도 단단히 단속하고, 지사도 널리 탐문하되 동래(東萊) 사람들에게 순유(巡諭)할 문서 한 부를 가지고 가서 교섭하는 사람을 많이 동원하도록 했다. 그리고 빠른 차편으로 올라오라는 등의 내용이다.

아울러 1912년 6월 18일 고종의 이증구에 대한 격려문(敦諭文)이 작성되었다. 그 내용은 선유사(宣諭使) 김세동의 회계(回啓)에서 ‘수신자가 스스로 자신(고종)의 말에 대의를 지킬 수 있다’고 한 충렬(忠烈)에 감사하고, 바다를 건너 일본과 답판을 짓는 일(渡海一事)을 완성하도록 부탁하며 일본에 국상(國喪)이 있으니 인산(因山)이 지나기를 기다린 후 동래항(東萊港)에 도착하여 선유사로 하여금 치계(馳啓)하면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하였다.⁸⁴⁾ 또한 일본답판사로 나선 이증구가 동래에 도착하여 올린 죽음을 각오하겠다는 문건도 있다. 여기서 이증구는 도해밀지(渡海密旨)를 받고, 두려워 몸 둘 바를 모르겠다고 하면서, 임금께서 세운 방책의 가부를 헤아리지 않고, 실행하기로 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밀유 마지막 부분의 ‘문원공 봉사손에게도 아울러 알려라(文元奉祀孫竝布)’라는 명이 있기에 이언적의 12세 봉사손 이석희(李錫禧)에게도 알렸으나, 그는 병을 앓은 지 여러 해가 되어 아직 몸을 가누지 못하고 가문에도 대표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이 때문에 자신이 늙고 연약한 몸으로 두 번이나 길에 올랐으나 병이 갑자기 발작해서 완치될 기약이 없었는데, 다시 도해밀지를 받고 전하가 거듭 선유한 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병든 몸으로 길에 올라 동래에 도착하는 즉시 선유사로 하여금 치계한다고 하였다.⁸⁵⁾ 그러나 이 때에 이증구의 건강은 크게 악화되어 있었고, 더 이상 이증구의 도해 답판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은 학계에 잘 알려지지 않았고 그 경과를 분명히 알 수 없으나, 이와 관련된 당시 기록을 찾는다면 의미 있는 사료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2) 가문보존 활동

일제강점기 많은 문중이 자신들의 선조 문집이나 유고, 실기 등을 유난히 많이 간행하였다. 이는 혼란한 시기에 훌륭한 조상들을 추모하고 기림으로써 결속력을 다지는 동시에 집안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종족을 보존하고자 하는 노력이 반영된 결과인 듯하다. 이러한 사회 현상은 단지 저서의 출판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재사·정자·누정 등으로 확대되었다. 마침내 이 문제는 한 집안의 범위를 넘어서 지배계층을 결속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런 사업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는데 이를 위해서 계를 조직하고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댄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본 고문서에는 그러한 상황을 짐작하게 하는 문서들이 다수 포함되어있다.

예컨대 1923년 11월 26일 장태흠(張泰欽)이 존장자 이증구에게 보낸 쪽지는 이런 취지를 잘 보여준다. 창락(昌樂) 소초공(小楚公) 유집(遺集)의 영간수계(營刊修契, 간행을 도모하기 위한 계)는 유림이 마땅히 해야 할 바이고, 자신의 집안도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않고 싶지만 길이 멀어 들지 못했다고 하였다. 지금 약간의 돈을 우편으로 부치려고 하지만 본가(本家) 주무장(主務丈)의 이름을 자세히 알지 못하니, 거주지와 명함을

84) 《이증구가 5대 고문서》, 84-043.

85) 《이증구가 5대 고문서》, 84-044.

보내 달라고 부탁한 내용이다.⁸⁶⁾

1923년 5월 강태걸(姜泰杰)이 이증구에게 보낸 광고문은 일제강점기 광고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전체 내용이 ‘간재사고절요광고(艮齋私稿節要廣告)’, ‘청구서(請求書)’, ‘검고(兼告, 冊名 白山尺牘 一帙四冊)’로 나뉘어져 있다. 간재사고절요광고에서는 간행 이유와 목적, 의의, 과정 등을 소개하고, 벌레 방식을 인쇄하는 데로 통지하는데 책의 형식과 종이 품질, 책값, 주문 방법 등에 대해 기록하였다. 청구서에는 서목(書目)으로 ‘간재사고절요’가 써여 있고, 나머지는 질수(秩數), 금액(價金), 청구날짜, 주소, 청구인 등이 기재되어 있다. 검고에서는 ‘구산척독(白山尺牘)’을 아울러 판매하려는 것으로, 간재(艮齋) 전우(田愚, 1841~1922)의 편지를 모아 간행, 배포한다는 내용 등이 실려 있다.⁸⁷⁾

일제강점기 나라는 패망하여 흔적도 없지만 면면이 전해온 집안의 이력과 선조의 학덕을 유지, 계승하려는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그 방향과 성격이 개인의 안위나 부귀를 향한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 향촌 선비들은 대의를 존중하는 선공후사의 전통을 이어갔다. 유가적 윤리 도덕과 학문을 간직하면서 신학문과 서구 문명을 수용, 변용시켜 자기화하려는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IV. 맺음말

19세기 들어서 본격화된 서구열강의 동아시아 진출은 1840년 아편전쟁으로 청조의 천조 체제에 균열이 생겼고, 중화 질서의 틀 속에서 조공책봉 관계로 안주하고 있던 조선에 미친 여파는 매우 컸다. 서세동점의 시기에 동아시아 삼국의 내부 동요와 변화, 대외 인식과 현실 인식을 포괄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단서는 동시대 지식인층의 동향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향신, 조선의 양반으로 대표된 이들은 봉건적 예교 문화와 학문의 생산자, 소비자, 전승자로서 전제왕조체제의 중심세력이요 향촌 사회를 지배하는 권력자였다. 또 봉건 군주의 협력자요 권력의 향유자였으며 민간사회의 계도자, 질서 유지자로서 위상을 가졌다. 이들이 기득권을 해체하고 근대 자본주의 체제에 강제 편입되는 과정은 충격과 영향 면에서 어느 시대, 어떤 계층보다 넓고 깊었다.

이증구가 5대 고문서는 근대이행기 경주지방을 중심으로 수많은 향촌 지식인들 사이에 오고 간 간찰과 문서를 통해 조선 후기부터 구한말까지 중앙과 지방 사회의 변모 양상을 낱낱이 살펴볼 수 있다. 범국가적으로는 향촌에 거주한 양반들의 동학, 위정척사, 을미사변, 단발령, 아관파천 등의 국내문제와 의화단사건, 청일전쟁, 러일전쟁 등 대외문제에 관한 현실 인식과 대응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향촌 지식인의 공공활동, 서원 및 개인의 학문활동, 전통문화와 관습, 관혼상제, 의료·보건, 과거 준비와 출세에 대한 열망, 친인척 간의 사랑, 지인 간의 관심과 배려, 문학 활동과 예술적 흥취 등 일상 속에서 반복된 삶의 모습과 생각들

86) 《이증구가 5대 고문서》, 56-H644.

87) 《이증구가 5대 고문서》, 56-H647.

이 그대로 드러나 향촌 양반사회의 민낯을 가감 없이 볼 수 있다.

극히 일부지만 본문에서 언급한 감모궁 건립 모금의 폐해, 러일전쟁 전후 일제 침탈에 대한 우려와 분노, 신문명에 대한 반응과 신지식체계의 수용 등을 통해 이 시기의 지식인들이 고루하거나 폐쇄적이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이중구 본인이 관직 생활을 마치고 낙향한 후 펼친 다양한 활동은 향론(鄉論)의 주도자요, 향촌 지도자로서 위상과 역할을 잘 보여주고 있다. 고종의 복국 운동은 실행유무와 문건의 진위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본 자료를 통해 나라를 잃은 군주의 절실한 노력과 이를 뒷받침했던 신하의 지극한 모습에서 저물어가는 봉건시대 충(忠)의 잔영을 엿볼 수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고 애절한 정을 드러낸 편지들도 많이 볼 수 있다. 사위 이능덕에게 장인 김진형이 보낸 서간은 해산이 다 되어가는 딸의 걱정, 조모상과 부친상을 당한 사위를 위로하는 위장(慰狀), 딸의 혼처 부탁, 연말 인사 등은 오늘날의 사위와 장인 관계에 못지않은 친밀감과 깊은 정을 느낄 수 있다. 이뿐 아니라 며느리를 보는 날, 딸은 오지 않고 사위만 오자, 딸 사돈이 사돈에게 보낸 아쉬움이 절절하게 배어난 편지나 손녀딸의 건강으로 애태우는 친정 할아버지의 애달픔을 살필 수 있는 편지, 출산을 앞두고 긴장감이 넘친 편지 등은 동시대 가족사랑이 엄격한 예교 질서란 표피적 현상과 많이 달랐음을 알 수 있다.

본 고문서 연구는 아직 진행 중이고 지면 제약으로 전체 모습을 낱낱이 소개하기에 한계가 있다. 8천여 통의 편지와 기타 문서의 탈초, 해제 및 기본정보 파악 등의 기초 작업이 마무리되고, 이를 토대로 한 이중구가 5대 고문서의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정리, 분석이 진행된다면 조선 후기부터 구한말까지의 사회상과 향촌 생활, 지식인의 현실적 고뇌와 대응 양상을 보다 실증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한국 근대사의 연구 범위와 대상을 확장시켜 중국·일본의 민간자료와 비교, 검토함으로써 근대 동아시아의 민간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을 제공할 것이다.

〈참고문헌〉

단국대학교 퇴계기념중앙도서관 소장, 《慶州 李中久家 五代 古文書 資料》

『명종실록』 1553년(명종 8) 11월 30일. 『조선왕조실록』, www.history.go.kr.

이언적(저), 조순희(역), 『회재집 1-2』, 2013.

목민기념사업회 편, 『(국역)회재전서』, 1991.

김성수, 『한국 근대서간문화사 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4.

하영휘, 『양반의 사생활: 조병덕의 편지 1700통으로 19세기 조선을 엿보다』, 푸른역사, 2008.

손문호, 『옛사람의 편지-사람과 시대를 잇는 또 하나의 역사』, 가치창조, 2018.

서혜란, 『회재 이언적, 독락당의 보물 서울 나들이』,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 2019.

김교빈, 『이언적: 한국 성리학을 뿌리내린 철학자』,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0.

이지경, 『회재 이언적의 정치사상』, 한국학술정보, 2005.

- 조창열, 『회재 이언적의 경학사상』, 한국학술정보, 2008.
- 목민기념사업회 편, 『회재 이언적의 철학과 정치사상』, 박영사, 2000.
- 장도규, 『회재 이언적 문학연구』, 국학자료원, 2000.
- 한국역사연구회,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1·2』, 청년사, 1996
- 한국고문서학회, 『조선시대 생활사』 1~4, 역사비평사, 1996, 2000, 2006, 2010.
- 전경목, 『고문서를 통해서 본 우반동과 우반동 김씨의 역사』, 신아출판사, 2001.
- 權容玉, 「晦齋 李彥迪과 良洞마을」, 『儒學研究』 26(2012. 8),
- 정연식, 「한국 생활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 조선시대 생활사 연구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72, 2009.
- 김현영, 「지방관의 ‘칭님’ 서간을 통해 본 조선말기 사회상 - 1884~1885년에 민관식(閔觀植)이 받은 간찰을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49, 2016.
- 김성운, 「조선시대 정치생활사 연구의 현황과 전망」, 『영남학』 13, 2008.
- 김주관, 「생활사 아카이브 구축의 의미와 방법」, 『지방사와 지방문화』 9: 2, 2005.
- 박대현, 「漢文書札의 格式 考察」, 『大東漢文學』 31, 2009.12.
- 박윤재, 「민중생활사 복원을 위한 의학사의 도전」, 『의사학』 24: 1, 2015.
- 심경호, 「고문서의 역사 문화적 가치와 역주를 통한 의미의 확장」, 『藏書閣』 36, 2016.
- 이수환, 「경주 驪州李氏 無忝堂(宗家) 및 李泳煥 소장 자료 해제」, 『수집사료해제집』 3, 국사편찬위원회, 2009.
- 이수환, 「경주지역 孫李是非의 전말」, 『민족문화논총』 4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9.
- 이병훈, 「조선시대 경주 옥산서원의 위상 변화」, 『한국서원학보』 11,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0, 참조.
- 임재해, 「민속학 생활사료 인식과 역사학의 통섭」, 『한국민속학』 61, 2015.

* 이 논문은 2021년 2월 25일에 투고되어,
2021년 3월 15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1년 4월 5일까지 심사하고,
2021년 4월 8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Abstract

Sorting Status and Research Results of the Paleographs of the Five Generations of Lee Jung-gu's Family in Gyeongju

Lee, Jaeryoung*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construct a database for history of civilian daily lives based on epistles from the second half of to the late period of Joseon. The materials for the research object are about 8-thousand manuscripts of the five generations of Lee Jung-gu's family in Gyeongju owned by Dankook University. The manuscripts are highly valuable as they are the inner records of a Yeongnam Namin(南人)-line family living through chaotic epochs and as characteristics and periods of the materials are clear. Macroscopically, feudal rural aristocrats('Yangban': 兩班)'s perceptions and reactions regarding domestic issues such as Donghak, Wijeongcheoksa(衛正斥邪), Eulmi incident, the ordinance prohibiting topknots(斷髮令), and Korea royal refuge at the Russian legation(俄館播遷), and regarding international issues such as Boxer Rebellion(Yihetuan Movement (義和團運動)), Sino-Japanese War, and Russo-Japanese War can be clarified. Microscopically, the images and thoughts of lives accumulated in everyday life, such as public sector activities, seowon and individual academic activities, traditional culture and customs, coming-of-age · wedding · funeral · rite(冠婚喪祭) systems, medical and health, aspirations for passing the state examination and successful career, love between relatives, interest and consideration of acquaintances, literary activities and artistic excitement are directly revealed so that their bare faces can be seen without hesitation.

For example, through worry and anger toward harmfulness of fundraising for building Gammogung and toward Japanese empire's pillage after Russo-Japanese War, reactions toward new civilization, and adaptation of new science system, it can be clarified that the literati in the late-Joseon were neither antiquated nor exclusive. Also, Lee Jung-gu's various activities in his hometown after his retirement very well show his role as a leader of local opinion. King Sunjong's restoring independence movement needs to be scrutinized for the existence of execution and the authenticity of the document. However, the documents included in the paleographs provides a

*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Dankook University

glimpse of the patriotism of the falling feudal era, through the desperate efforts of the monarch who lost his country and the extreme devotion of his servant who supported it.

There are many letters revealing the worry about family members' safety and the doleful feelings in daily lives. The letters which father-in-law Kim Jin-hyeong sent to son-in-law Lee Neung-deok show familiarity and kinship as deep as those between today's in-laws' through worrying about Neungdeok's wife facing delivery, comforting son-in-law experiencing the deaths of grandmother and father, asking for matchmaking for Kim's second daughter, and new year greeting. Moreover, Kim express his sorrow in a letter as only his son-in-law came without his daughter on the day of seeing her daughter-in-law. Kim as a grandfather reflects the sorrow of her granddaughter in another letter. Other letters show the tension facing delivery and a sigh of an 85-year-old man. These letters verify that love in a family of the time were quite different from strict custom system and superficial phenomena.

If documentation, commentary, and digitization of the letters and other paleographs of Lee Jung-gu's family are completed, and if systematic sorting and analysis on them are progressed, the social reality, the rural daily lives, the literati's agony and response can be more practically clarified. Also, the boundary and objects of studying Korean modern history can be expanded toward understanding East Asian modern history.

[Keywords] Lee Jung-gu, Lee Eon-jeok, Jaungyeon, Lee Jae-rip, Lee Neung-deok, Lee Seog-il, a dispute between both families Sohn and Lee, Kim Gyu-hwa, Kim Jin-hyeong